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감사    제목 : 여호와께 감사하자    성경: 시편 107편  
1-15절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 12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 13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엮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 1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시107:1-15)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끝까지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대우해 주신다.

마치 엄마가 그 자녀에게 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 점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으면 그 고난을 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가끔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지은 죄의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지혜롭게 묻지 않아서 더 오래도록 고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인생은 전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머물러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허송세월일 뿐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쪼개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만회할 기회를 항상 주시어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가장 좋은 기회는 오늘 주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다.

우연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최선이다.

그리고 항상 나쁜 일은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내가 감사하며 다행스럽게 여기며, 겸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는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그는 약한 존재일 뿐이다. 선은 강하고 질기다. 힘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시37:8-11)

그러니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에요, 돌파력이다.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1:2)

결국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2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를 곤란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말한다.

(어제 관리소장과의 일화-그가 비협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돕는자를 붙이셔서 해결하셨다.)

-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4-7절은 광야생활과 가나안생활을 연상시킨다.

우리가 광야의 사막길을 걷는 것과 같은 시절도 있다. 주리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그 몸 안에서 피곤하다. 그러나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

-인생에 광야가 사실은 복이다. 고통이 복이다. 왜냐면 악이 빠지고 병이 낫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나. 이스라엘 민족이 열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오랜 광야생활을 보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앞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엷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인생이 가는 길, 속고 속임을 당하고,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허망한 것을 믿고 따르고, 작은 이익에 배신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인 척하는 것이 인생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복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 그를 깨우친다는 점이다. 그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가 겸손할 수 있게

된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 이점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너무 그런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지 않고 위해서 중보한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고난은 그들을 연단하였고, 그들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욘23:10) <개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15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할지로다 (시107:1-15)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